



한명우 기자의
미국 불교 답사기



◁캘리포니아주 테하차피 사막에 위치한 태고사. 미국내 한국사찰중 전통양식으로 건립된 곳은 태고사를 포함해 극소수에 불과하다.



**한국불교 활성화 위해서는
 종단과 연계한 해외 포교프로그램 구축 시급**

‘한국 사찰은 있는데, 한국 불교는 없다’ 미국의 한국 불교 실정이다. 사찰들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미국에서 한국 불교는 다른 나라 불교와 비교하면 왜소하기 그지없다.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체계적인 포교시스템 부재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종단차원이 아닌 전적으로 개인의 원력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재원확보와 프로그램 운영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종단과 연계한 해외포교 시스템 구축은 실로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단적인 예로 뉴욕 불광선원 신도인 임숙구씨(44)는 한글교육을 위해 아이들을 교회에 보낸다. 한글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찰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 사찰들 대부분이 영세성을 면치 못하다보니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영역에 능통한 스님들과 영역권 경전 및 한국불교 소개책자가 없는 것도 큰 이유다. 6박8일간의 미국불교 취재에서 만난 스님들과 신도들, 그리고 불교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무리 한국불교를 알리고 싶어도 현지인들을 이해시킬 사람과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전통양식의 사찰이 없는 것도 한 이유다. 미국의 한국사찰들이 일반 건물에 입주해 있거나 전통미를 살릴 수 없어 시각적·심리적인 흡인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큰스님 부재도 원인으로 꼽힌다. 달라이 라마나 송산스님이 그랬듯이, 지명도 있는 스님들이 미국 법회를 자주 열어 한국불교와 간화선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세로사진은 미국내 일본사찰과 중국사찰.

한국 절은 있는데 한국 불교는 없다

온통 바위산으로 뒤덮인 사막 한복판, 미국 LA에서 북쪽으로 꼬박 두 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캘리포니아주 중부 테하차피(Tehachapi)에 위치한 한국전통사찰 태고사. 사찰이 그렇게 웅장한 사막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다. 다행히도 돌산을 비집고 자란 나무들이 태고사 주변을 감싸고 있어 그런대로 절 분위기가 느껴진다.

송산스님 제자인 태고사 주지 무량스님은 미국인이다. 작업복 차림으로 온 종일 대웅전 불사에 매달리면서도 좌선정진을 거르지 않는다. 거리상으로 보면 찾는 이가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매주 10여명 가량이 이곳에서 2박3일간 정진을 한다. 태고사는 미국의 한국 사찰 중에서도 한국불교의 전통 수행법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

태고사 방문 이틀 전인 10월5일(한국시간 10월6일) 조계종 출입기자단으로 구성된 미국불교 취재단이 미국에 발을 디디면서 맨 처음 방문한 곳은 미국 내 한국 사찰 중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LA 관음사다. 이곳에서 포교를 시작하지 올해로 30년이 됐으니 짧지 않은 세월이다. 이날 열린 관음사 일요법회에는 120여명의 신도들이 참



◁태고사 대웅전 불사현장 앞에서 조계종 기획실장 현고스님(왼쪽)과 태고사 주지 무량스님(가운데)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놓고 <뉴욕 불교>라는 잡지도 발행하면서 한국불교 포교에 나서고 있다.

취재단이 8-9일 이틀간 방문한 뉴욕 소재 한국 사찰은 불광선원과 원적사. 불광선원은 호젓한 숲 속에 자리잡고 있지만 전통사찰 면모를 갖추지는 못했다. 재원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공양주 보살마저 쓸 수 없는 형편이니 어느 정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짐작할 만하다. 사실 미국 내 한국 사찰들은 거의 대부분 불광선원과 같이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한국불교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따라서 신도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도내이전(기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국 사찰들로서는 당연한 일이다.

**한국 사찰 100여곳, LA 가장 많아
 일부 미국식(교회)으로 법회 진행
 불교 열풍속 인지도 낮고 재정 빈곤**



◁LA 관음사 법당에서 좌선 하고 있는 신도들.

뉴저지에 위치한 원적사에서는 비교적 미국인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최근 미국에서 불교 있는 명상열풍이 워낙 뜨겁게 불을 지르고 있는 원적사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근래 들어 고등학교에서도 명상 동아리가 많이 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청년들에게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다.

7일 취재단과 만났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UCLA) 불교학연구소장 로버트 버스웰 교수는 “정신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고 기독교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면서 불교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늘고 있다”며 미국의 명상열풍을 전했다.

LA 고려사 회주 현호스님도 “최근에 (전)센터가 400여 개나 늘어난 정도로 미국에는 불교바람이 불고 있다”고 말했다.

뉴욕 맨해튼 번화가에 위치한 삼팔라선터는 티베트의 명상법을 가르치는 곳이다. 10일 삼팔라선터를 방문한 취재단은 이곳의 수행 지도자 테보라씨에게서도 명상이 미국 사회에 급속히 파고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테보라씨는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만도 350명이 넘는다. 유대인들이 자기 종교활동을 하면서도 명상을 배우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추세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테보라씨는 “한국의 간화선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없다”고 답했다. 사실 미국불교를 취재하면서 어느 누구로부터도 ‘미국인들이 간화선에 대해 알고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1900년대 초부터 미국에 들어오기 시작한 불교는 현재 한국을 비롯해 티베트, 일본, 태국, 스리랑카, 미얀마, 대만, 베트남 등 세계의 모든 불교가 들어와 있다. 가히 ‘불교백화점’이라 불릴 만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 사찰들은 고군분투하며 명맥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한국불교의 전통과 색채를 따지 못하고 있다. 미국에 한국불교가 진출한 지 40년. 짧지 않은 세월이지만 한국불교는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을 뿐이다.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천지간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나...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수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인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대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제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이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히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인병의 신호한 三淨丹(삼정단)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허로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 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